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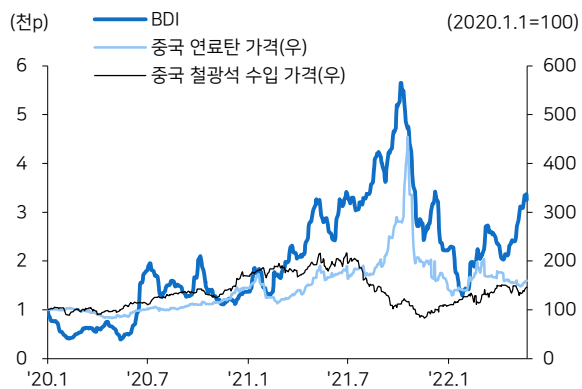
2022. 5. 25 (수)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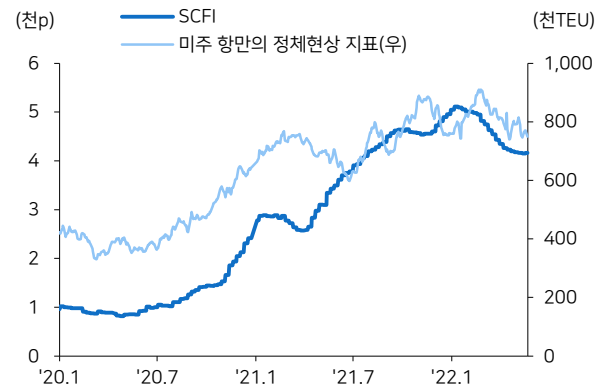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253p(-11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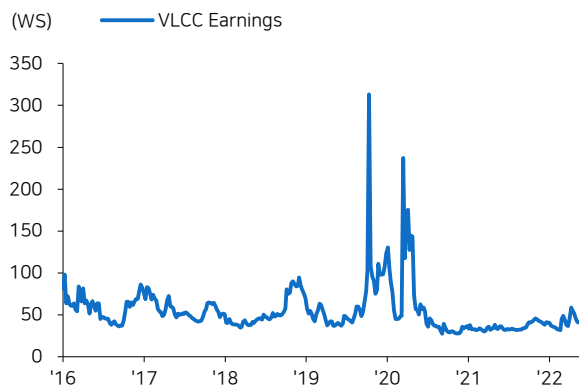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62.7(+14.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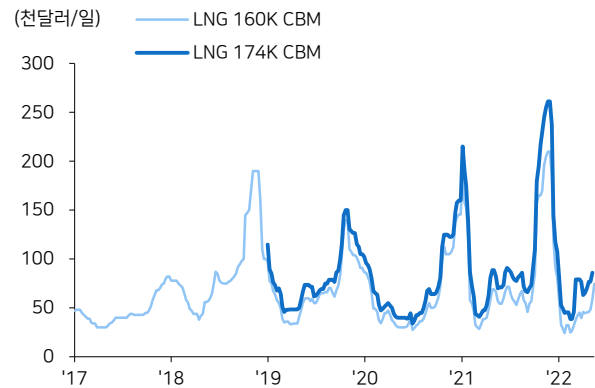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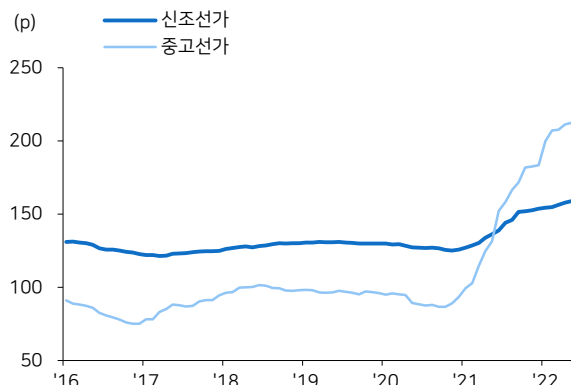
40.8p(+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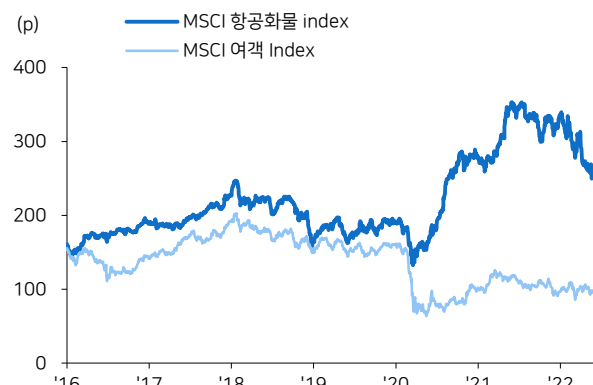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74.8p(+15.8p WoW)
98.0p(+12.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9.0p(+0.8p WoW)
212.3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56.5p(-1.2p DoD)
95.9p(-2.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김포-하네다 내달 1~8일 재개...韓日 국적 항공사 주 8회 운행

6월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된다고 보도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ANA)가 주 8회 운항으로 시작함. 2020년 3월부터 중단된 해당 노선은 6월 1일~8일 사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짐. (뉴시스)

아시아나항공도 A380 다시 띄운다...방콕 이어 미주 노선 투입

아시아나항공이 초대형 항공기 A380을 이르면 6월말부터 방콕노선에 주 7회 띄운다고 보도됨. 7월중순부터는 미국 LA에 주3회, 8월부터는 LA와 방콕 모두에 A380 투입이 목표라고 알려짐. A380 투입은 추가증편없이 좌석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됨. (동아일보)

Capesize bulker backhaul gains steam as Europe goes the distance for coal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유럽이 석탄을 더 멀리서 수입하며 Capesize벌크선 C16 대서양횡단 항로 운임이 크게 상승했다고 보도됨. 전쟁이 발발한 2월 24일 1,050달러/일에서 5월 24일(월) 기준 30,500달러/일까지 상승함. 이에 Backhaul 운임이 Fronthaul 운임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도됨. 한편, Breakwave Advisors는 최근 운임 상승은 전쟁으로 인한 석탄교역 항로 변동으로, 대다수 물동량은 호주-중국, 브라질-중국 노선에 집중되어있어 Capesize 시장에 본질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India to Limit Sugar Exports in Risk to Global Food Prices

인도가 설탕수출물량도 제한할 것으로 보도됨. 인도는 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인데, 9월까지 연간 설탕 수출물량을 최대 1,000만톤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함. 수출물량 900만톤 도달 시 나머지 100만톤 수출 전 정부허가를 받아야함. 인도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710만톤을 수출, 5월 수출량 감안 시 남은 수출가능량은 약 200만톤임. 한편,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 5월에만 인도에서 밀, 말레이시아에서는 닭고기 수출 중단 발표가 있었음. (Bloomberg)

세계 올 겨울 천연가스 대란 우려..."아시아·유럽 확보경쟁"

2022년 겨울 역사적인 수준의 가스 부족사태가 우려된다고 보도됨. Rystad Energy는 2022년 전세계 천연가스 수요를 공급가능량보다 2,600만톤 많은 4.36억톤으로 전망함. 일반적으로 수입국들은 여름 동안 다음 겨울 성수기를 대비해 LNG를 비축하는데, 올해는 이미 비축 작업이 시작됨. 국내 업체들은 2023년초 인도분까지 확보 중이고, LNG공급업체들은 아시아 물량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유럽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알려짐.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전 회원국 천연가스 공동구매계획도 발표함. (연합뉴스)

조선업계, 러시아 리스크 현실화...대우조선 LNG선 3척 해지 위기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10월 수주한 쇠빙 LNG운반선 3척이 모두 계약 해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됨.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러시아 선사가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선주사는 러시아 국영에너지회사 노바텍으로 추정됨.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당시 수주한 금액은 1조137억원인데, 3,379억원 규모 1척은 취소됐고, 나머지 6,785억원 2척이 남은 상황임. 계약해지된 선박 1척의 건조 진행률(3월말 기준)은 46% 정도인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920억원으로 알려짐. (뉴시스)